

#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短兵器와

## 『武藝諸譜』의 간행

鄭海恩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2. 조선이 접한 단병기
3. 단병기의 확산 추이
4. 『무예제보』의 간행
5. 맺음말

### 1. 머리말

임진왜란기 때 조총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으나 일본군이 지닌 短兵器<sup>1)</sup>인

1) 短兵器는 짧고 작은 모양의 무기 또는 가까운 거리에서 근접전을 벌일 때 사용되는 무기를 일컫는다. 장병기는 이와 반대로 긴 모양의 무기 또는 먼 거리를 공격할 때 사용되는 무기를 말한다.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73) 『武備志』에서는 劍·刀·槍·鎗·牌·狼筈 등을 단병기로 꼽았고 棍은 단병기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무기로 보

창·검은 살상력이 매우 컸다. 이미 16세기에 왜구를 통해 명나라에도 위력을 떨친 일본의 창·검술은 임란 때 조선군이나 명나라 군에게 위협적인 무기로 인식되었다. 유성룡은 왜인의 장기로 조총·用劍·돌격 등 세 가지를 꼽을 정도로 일본군의 칼을 위협적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일본의 단병기는 조총과 긴밀히 결합된 전술에 힘입어 이전 시기보다 더 큰 위력을 떨쳤다.

이런 가운데 戚繼光의 『紀效新書』가 조선에 알려진 시기는 1593년 1월 초 제독 이여송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였다. 조선에 파병된 명군 가운데 南兵(浙江兵)이 화기와 단병기를 적절하게 구사해 일본군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은 임란 초기 속수무책으로 밀리면서 의주로 피신해 있던 조선 조정에게 매우 주목할 만한 방법이 아닐 수 없었다. 이미 조선에서도 칼이나 창이 있었으나 궁시에 비해 등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예법마저 미비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일본군을 막을 시급한 대비책으로 『기효신서』의 이해에 전력을 쏟게 되었다. 본고에서 검토할 『武藝諸譜』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병서로서, 『기효신서』 가운데 棍棒·籐牌·狼筈·長鎗·鎗鈹·長刀 등 6기를 골라 해설과 그림 그리고 한글 번역문(언해)을 붙인 책이다.

『무예제보』는 1990년대 발굴된 이후 이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 진척을 보아 간행 배경이나 수록내용 그리고 『기효신서』와의 연관성 등이 밝혀졌다.<sup>2)</sup> 그러나 아직까지 단병무예에 대한 관심이 『武藝圖譜通志』에 집중된

았다. 그리고 장병기로는 弓·弩가 있다.(卷8, 陣練制 教藝編 『紀效新書』에서는 叉鈹·棍·鎗·偃月刀·鈎鎌·籐牌 등을 단병기로, 弓·箭·火器는 장병기로 파악하였다. (卷10, 長兵短用說; 卷12, 短兵長用說: 國學基本叢書153, 臺灣商務印書館, 1968년, 127쪽·151쪽)

2) 朴起東, 「武藝諸譜의 발견과 그 사료적 가치」,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임기진 교수 화갑기념 특집호) 18호, 강원대학교, 1994; 박기동, 『朝鮮後期 武藝史 研究 - <武藝圖譜通志>의 形成過程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체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盧永九, 「조선후기 短兵 戰術의 추이와 <武藝圖譜通志>의 성격」,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2001; 盧永九,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의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羅永一, 「<武藝圖譜通志>의 武藝」,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2001.

탓에 『무예제보』를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무예의 도입이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무예제보』의 연구는 임진왜란기에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의 상황과 연관지어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새로운 병법이나 전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겪은 여러 상황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는 임진왜란기 『무예제보』의 간행 과정을 조선에서 이루어진 단병기의 수용 노력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무예제보』는 1598년(선조31) 10월에 완성되었다. 이 해는 11월 노량해전을 끝으로 일본군이 조선에서 총퇴각하면서 전쟁이 막을 내린 시점이다. 또 척계광의 『기효신서』가 조선에 알려진 때로부터 6년을 훨씬 넘긴 시점이기도 하다. 『무예제보』를 만들기까지 이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기효신서』의 단병무예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소화·정착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임진왜란기 조선에서 단병기가 수용된 과정과 그 확산 추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무예제보』의 간행이 갖는 의의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접한 일본군과 명나라 군의 단병기를 세밀히 관찰해 분석하였다. 현재 임진왜란기 조선에 수용된 단병기는 대부분 명군의 단병기를 위주로 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 『기효신서』에 큰 관심을 보인 배경에는 일본이 구사한 단병기의 위력이 크게 작용했으므로 일본군과 명군의 단병기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선에서 단병기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보급 과정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조선의 단병기 수용은 구체적인 검토 없이 『기효신서』의 도입과 곧바로 등치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조선에서 단병기 수용은 『기효신서』를 입수한지 1년 정도가 지나면서 본격화되며 이전까지는 編伍와 鍊兵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단병기가 조선에 부각된 과정과 수용 노력에 주목하면서 단병무예가 조선에 정착하는 지난

한 과정을 알아보았다.

셋째,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무예제보』의 간행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았다. 『무예제보』의 간행은 단병무예를 조선에 뿌리내릴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무예제보』의 간행기간이 장기간 걸린 측면을 어떤 사회사적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 2. 조선이 접한 단병기

### (1) 일본의 단병기

1592년 왜란 발발 이후 1598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선에 건너온 일본군의 규모는 30만 대군이였다. 전쟁 당시 일본군은 상층계급의 騎士와 일반평민으로 구성된 步卒로 편성되었다. 이 가운데 보졸은 弓兵·조총병·槍兵(長柄組)으로 나뉘어 제1선에 배치되었는데 흥미롭게도 창병의 비중이 높아 활과 총의 2隊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sup>3)</sup> 반면 조총부대의 비중은 예상보다 높지 않아 薩摩島津의 경우 군사 15,000명 가운데 조총병은 1,500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수준이었다.<sup>4)</sup> 鄭瑑의 관찰에서도 조총은 검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어서 검을 가진 자가 천이나 백명 단위라면 조총을 가진 자는 수십명이라 하였다.<sup>5)</sup>

1593년 8월에 豊臣秀吉은 진주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조선 연안에 축성을 착수하고 여기에 비치할 수비병력과 병기·탄약 등의 수량을 결정하였

3) 旧參謀本部 編, 『朝鮮の役』(日本の戰史 ⑤), 徳間書店, 1965, 68~69쪽, 217쪽.

4) 盧永九,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43쪽.

5) 『龍灣見聞錄』, 『興胡相公書』, (한국사료총서 36, 국사편찬위원회 탈초본, 1993, 361쪽)

다. 그 가운데 병사와 병기규모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sup>6)</sup>

<표 1> 1593년 豊臣秀吉이 정한 조선 연안의 수비병력과 병기규모

지역 \ 무기	士 卒	銃 砲	弓	矢	刀	槍
가덕도 金海城	5,000人	200挺	300張	6,000	450腰	200本
거제도	2,000人	100挺	100張	2,000	400腰	100本

<표 1>에서 수비병력을 보면 큰 성이 5,000명, 작은 성이 2,000~3,000명이다. 병기 규모는 총포가 큰 성의 경우 200정이며 작은 성이 100정으로 병력수의 4~5%의 수준이다. 반면에 刀가 400~450정이며 창·의 규모는 200~100개 정도다. 여기서도 일본군 무기에서 刀·槍·弓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포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위의 결정이 실제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본군의 무기 분포 상황을 간접적으로 방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sup>7)</sup>

일본군이 소지한 창·검의 살상력은 이미 16세기 전반 왜구를 통해 명나라에도 위력을 떨쳤다. 척계광은 『기효신서』(1562년)에서 왜적은 “창·검을 햇빛을 받으면 번쩍거릴 정도로 갈고 닦아 병사의 이목을 빼앗았기 때문에 아군은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그 위용에 겁을 먹었다”고 적고 있다.<sup>8)</sup> 또 명군의 기록에 따르면 왜구의 쌍검 솜씨는 너무나 민첩해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번쩍이는 검만 보이고, 창도 너무 빨라 창이 날아가는 것조차 볼 수 없다고 하였다.<sup>9)</sup>

6) 旧參謀本部 編, 앞의 책, 95쪽.

7) 조총은 임진왜란 때 효력이 크다는 것이 입증된 후 정유재란에서는 임란 때보다 더 많은 물량을 투입했다 한다.(旧參謀本部 編, 앞의 책, 68쪽)

8) 『紀效新書』總敘.(앞의 책, 6쪽) “善磨刀鎗 日中閃閃 以奪士目 故我兵持久 便爲所怯.”

9) 레이 황(박상이 옮김), 『1587-아무 일도 없었던 해』, 가지 않은 길, 1998, 246쪽.

왜란 때에도 일본군의 창·검은 조총 못지않게 중요 무기였다. 조선은 1592년에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면서 일본군이 조총(鐵丸)과 長劍만 쓰고 다른 기술은 없다고 전하였다.<sup>10)</sup> 유성룡은 왜인의 장기는 조총·用劍·돌격 등 세 가지라고 하면서 일본군의 칼을 조총과 함께 살상력이 큰 무기로 강조하였다.<sup>11)</sup> 鄭琢도 일본군이 믿는 것은 長劍이요 능숙한 것은 鐵丸이라 하였다.<sup>12)</sup> 뒤 시기의 기록이지만 李象鼎(1710~1781)은 “雙手刀(長刀)<sup>13)</sup>는 왜구가 중국을 침범한 뒤로 처음 출연했는데 왜구들이 이 칼을 번쩍거리면서 춤을 추고 전진해 오면 우리 병사들은 이미 기선을 제압당하고 말았다”<sup>14)</sup>고 표현하였다.

왜란 당시 일본군이 휘두른 검의 위력은 여러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592년 1월 평양성 전투의 전모를 밝힌 기록을 보면, “적(일본군)도 성가퀴 위에서 오색의 깃발을 많이 펼치고 긴 창과 큰칼을 묶어 날을 가지런히 하여 밖으로 향하게 하여 항거하며 지킬 계획을 하였다.”고 하며 일본군 칼에 희생당한 명군이 1,000명 정도라고 하였다.<sup>15)</sup> 1592년 5월에 金明元이 이끄는 군사가 임진강 전투에서 패해 후퇴할 때 미처 강물로 뛰어 들지 못한 많은 조선군들이 일본군의 칼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다.<sup>16)</sup> 또 임란 당시 경상도 순찰사 金晬의 휘하에서 활약하던 李擢英(1541~1610)은 1592년 7월에 “아군의 혈전으로 거의 5~600명이나 사살했고 아군도 총알을 맞거나 칼에 맞은 사상자가 많았다고 한다.”<sup>17)</sup>고 보고하였다.

일본군이 구사한 창검술은 임란 때 조선군뿐만 아니라 명군에게도 위협

10) 『宣祖實錄』卷28, 宣祖25年 7月 丁丑.

11) 『辰巳錄』, 「條陳討賊機務狀(壬辰十月)」.(『西厓全書』1, 서예선생기념사업회, 1991, 687쪽)

12) 『龍灣見聞錄』, 「與胡相公書」.(앞의 책, 361쪽)

13) 『兵學指南演義』卷2, 營陣正毅 遠近兼授第五. “雙手刀 卽長刀也”.

14) 『兵學指南演義』卷2, 營陣正毅 遠近兼授第五 器械.

15) 『宣祖實錄』卷34, 宣祖26年 1月 乙丑 ; 『宣祖實錄』卷34, 宣祖26年 1月 丙寅.

16) 『懲愆錄』卷1, 壬辰.(『西厓全書』1, 586 쪽)

17) 『征蠻錄』乾, 壬辰變生後日錄.

적이었다. 유성룡은 1593년 1월 벽제관 전투에 대해 “이때 제독 이여송이 거느린 군사는 모두 북방의 기병으로 화기도 없고 다만 짤막하고 무딘 칼만 가졌을 뿐이다. 적병은 보병으로서 칼이 모두 서너 자나 되는 예리하기 비길 데 없는 것이었다. 이들과 충돌해 싸우는데 적병은 긴 칼을 좌우로 휘둘러 치니 사람과 말이 모두 쓰러져서 감히 그들의 날카로운 기세를 대적할 수 없었다.”<sup>18)</sup> 고 하면서 명나라 기병부대가 일본군의 장검을 당해 내지 못했다고 평하였다.

임진왜란 무렵 일본에서 창검술이 발달한 배경은 일본의 국내 사정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임진왜란은 일본에서 戰國時代가 경과한 직후로서 무사뿐만 아니라 町人·百姓까지도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단으로 창검술을 익혔다. 그러므로 임란 당시 일본의 창검술은 이미 實戰力을 구비한 상태이며 최고로 그 기술이 융성하던 시대였다. 刀의 길이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더 길어졌고<sup>19)</sup> 임란 때 조선에 파견된 寺澤廣高·黑田長政·菅和泉·細川藤孝·忠興 등의 무장은 검술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인물이다.<sup>20)</sup> 槍도 전국시대 이후 중요한 접전용 단병무기로 자리잡았다.<sup>21)</sup>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일본의 창검술은 이미 고려 때에도 왜구를 통해 알려진 상태였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이 戰國時代를 거쳐 실전력을 구비하면서 창검술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는 임란 때 일본군이 보여준 창검술의 위력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유성룡의 견해는 임란 당시 일본군의 단병기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유성룡은 고려말 왜구들이 장창과 단도만 가지고 도둑질하러 왔을 때에

18) 『懲志錄』卷2. (『西厓全書』1, 602쪽)

19) 李焜錫, 『壬辰戰亂史』(下卷), 임진왜란사간행위원회, 1974, 1311쪽.

20) 富永堅吾, 『劍道五百年史』, 百泉書房, 1972. (山本純子, 『武藝圖譜通志』にみられる, 『雙手刀』に關する一考察-壬辰·丁酉倭亂期の分析から, 『武道學研究』24卷 1號, 日本武道學會, 1991, 26쪽 재인용)

21) 旧參謀本部 編, 앞의 책, 219쪽.

도 수십 보 밖에서 화살로 제어하면서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에게 무너져버린 것은 사정거리와 명중률이 뛰어난 조총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sup>22)</sup> 곧, 일본군의 단병기가 보다 효과적인 공격력을 발휘한 데에는 조총의 역할이 컸다는 지적인 것이다.<sup>23)</sup>

일본군의 전법은 이덕형의 관찰에 따르면 “가장 먼데서 총을 쏘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찌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칼로 치는” 전법을 구사하였다.<sup>24)</sup> 실제로 일본군의 전법은 가장 앞에 위치한 旗幟 부대가 양쪽으로 나뉘어 먼저 적을 포위하면 다음으로 조총병이 일시에 총을 발사해 적을 살상하고 전열을 무너뜨렸다. 곧이어 창·검을 지닌 군사가 도망가는 적을 뒤쫓아가 백병전을 맹렬히 전개했다.<sup>25)</sup> 요컨대, 임란 때 일본의 단병기는 조총과 결합된 전술 속에서 이전 시기보다 더 큰 위력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이다.

## (2) 중국의 단병기

왜란 때 조선의 요청으로 명나라 군이 압록강을 건너온 시기는 1592년 6월 중순이었다. 이때부터 終戰까지 파병된 명군은 22만 정도로 추정되며<sup>26)</sup> 출신지에 따라 크게 北兵과 南兵이 있었다. 북병은 薊州·遼東·保定·山東·廣寧 등지의 출신으로 마병이 많고 胡敵과 싸우는 데 능하다고 평가되었다. 남병은 절강·북건·江蘇·江西 등지의 군사로 대부분 보병이며 화기와 검술에 뛰어나 왜구 방어에 동원되었다.<sup>27)</sup> 이 가운데 조선에 파병된 명

22) 『燃藜室記述』別集 卷12, 政教典故 戎裝軍器.

23) 박재광, 「임진왜란기 한·일 양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일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0, 한일관계사연구회, 1996, 465쪽.

24) 『宣祖實錄』卷35, 宣祖26年 2月 乙巳.

25) 『西厓全書』本集 卷15, 雜著 倭知用兵(『西厓全書』1, 328쪽); 旧參謀本部 編, 앞의 책, 217쪽.

26) 『象村集』卷56, 志「天朝先後出兵來援志」.(민족문화추진회 간행본, 1990, 6책 174쪽)

27) 崔韶子, 「明末 中國의 世界秩序의 변화-壬辰·丁酉倭禍를 中心으로-」, 『명말·청초 사회

군은 대부분 북병이었다.<sup>28)</sup> 1592년 6월에 조선에 도착한 祖承訓 군 3,300 여명은 요동병 즉 북병이었다. 또 1593년 1월 제2차 평양성 전투에 참여한 43,500명 가운데 남병은 낙상지·오유충·王必迪·威金이 이끄는 보병 8,500명(20%) 정도에 불과하였다.<sup>29)</sup> 그런데 왜란 동안 조선 조정은 북병 보다는 남병에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었다.

1592년 7월 조승훈 군이 치른 평양성 전투는 선봉장 사유를 비롯해 지휘 부와 군사 대부분이 전사할 만큼 대패였다.<sup>30)</sup> 조선에서는 조승훈 군의 패배 이후 명군을 다시 요청하면서 남병의 과병을 기다렸다. 조선에서는 “남병은 일당백이다.”고 평할 만큼 남병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sup>31)</sup> 이는 남병이 화포를 소지한 포수라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sup>32)</sup> 명나라에서도 조승훈 군의 대패 이후 화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福建省이나 남방 포수를 청병하든지, 절강의 낭선·당파·화포 부대를 동원해야 일본군을 이길 수 있다고 보았다.<sup>33)</sup> 1592년 8월 李幼澄은 압록강을 건너가 남병이 당도하는 모습을 선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신이 노상에서 남병이 당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보병이며 소지한 기계는 편리하고 빠른 것으로 왜의 총통과 화포 따위의 여러 기구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날랜 모습이며 착용한 巾과 신이 요동이나 북경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sup>34)</sup>

의 照明』, 한울아카데미, 1990, 232쪽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129쪽.

28) 한명기, 위의 책, 129~130쪽.

29) 『宣祖實錄』卷34, 宣祖26年 1月 丙寅.

30) 趙浚來, 「明軍의 出兵과 壬亂戰局의 推移」, 『韓國史論』, 국사편찬위원회 1992, 116~117쪽.

31) 『宣祖實錄』卷31, 宣祖25年 10月 乙巳.

32) 『宣祖實錄』卷28, 宣祖25年 7月 癸未 ; 『宣祖實錄』卷28, 宣祖25年 7月 甲申.

33) 『宣祖實錄』卷28, 宣祖25年 7月 戊午 ; 『宣祖實錄』卷28, 宣祖25年 7月 己卯 ; 『辰巳錄』卷1, 「馳啓唐人王寵諫所言狀(壬辰七月二十四日)」, (『국역 辰巳錄』, 서예선생기념사업회, 2001, 45쪽)

34) 『宣祖實錄』卷29, 宣祖25年 8月 庚子.

남병은 조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이들의 활약으로 2차 평양성 전투(1593. 1. 6~9)<sup>35)</sup>에서 조·명 연합군은 대승을 거두었다. 더구나 이여송이 이끄는 북병이 벽제관 전투(1593. 1. 25~27)에서 패배한 후 조선 조정은 왜적 방어에는 보병이 기병보다 낫다는 인식이 번져 나갔다.<sup>36)</sup> 鄭琢도 유정의 스승으로 알려진 胡煥에게 쓴 편지에서 사천·절강병이 최상이며 다음으로 요동·광녕병이라 하였다.<sup>37)</sup>

절강병이 임란 때 조선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유는 전법 때문이었다. 절강전법에서는 한 隊를 隊長, 방패수(2명)·낭선수(2명)·창수(4명)·당파수(2명), 취사병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sup>38)</sup> 군사배치는 방패수(前)→낭선수→창수→당파수(後)로서 방패·낭선수가 앞쪽에서 적군을 유인하면 창수가 공격을 가했고 당파수는 후위를 엄호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격에 가세했다.<sup>39)</sup> 이상정은 평양성 전투에서 명군이 먼저 火攻으로 기선을 제압한 후 적이 돌진해 오면 낭선수를 집중 대기하고 적이 움직이지 않으면 방패수가 전진했다고 분석하였다.<sup>40)</sup> 여기서 장창수가 빠져 있으나 절강전법에서 창수는 엄호병과 밀착된 상태에서 공격하도록 강조했으므로<sup>41)</sup> 방패·낭선수 뒤에 槍手가 공격수로 배치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화기와 단병기의 긴밀한 협조로 운용한 절강전법은 일본군 전법과 유사하며 이 때문에 일본군을 제압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조선 조정이 갖는 남병·북병에 대한 인식은 終戰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1593년 11월에 吳惟忠 등이 이끈 남병이 경상도 안강 전투에서 패했음<sup>42)</sup>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잘 깨지지 않았다. 반면, 1597년

35) 전투 시기는 崔韶子, 앞의 논문, 231~241쪽 참조. 아래도 같다.

36) 『宣祖實錄』卷35, 宣祖26年 2月 庚寅; 『宣祖實錄』卷65, 宣祖28年 7月 己卯.

37) 『龍灣見聞錄』, 「書示胡相公」, 「與胡相公書」.(앞의 책, 344쪽, 365쪽)

38) 『紀效新書』卷1, 束伍篇.(앞의 책, 24쪽)

39) 레이 황, 앞의 책, 252쪽.

40) 『兵學指南演義』序.

41) 『紀效新書』卷2, 緊要操敵號令簡明條款篇.(앞의 책, 35쪽)

8월 양원이 이끄는 북병이 남원성에서 일본군에 대패하자 불신감이 더 높아졌다.<sup>43)</sup> 明人 諸葛元聲도 남원성 전투를 평가하면서 조승훈·양원의 공통점으로 遼將으로 둘 다 야간에 기습을 당했고, 병사 6,000명 모두 遼兵이라는 점을 꼽았다.<sup>44)</sup> 북병은 남원성 전투 이후 한 달만에 직산 전투(1597. 9. 6~7)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 전투는 격전장이 들관(金烏坪)이어서 기병 부대의 장점을 잘 살려냈다. 그럼에도 북병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유성룡은 직산 전투를 『징비록』에 남기지조차 않았다.<sup>45)</sup>

그러면 왜란 때 명군이 조선에 갖고 들어온 무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이 문제는 1592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조선의 倭禦軍務를 총괄한 經略 宋應昌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명군의 전쟁준비를 독려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송응창은 경략으로 임명되면서 병기 확보를 크게 강조하였다. 먼저 경략으로 임명된 직후 황제에게 군사훈련과 병기제작을 독려하는 칙서를 내려주도록 청하는 소를 올린다.<sup>46)</sup> 9월 27일에는 天津·永平·遼東 등 6道에 격문을 보내 장인을 독려해 大砲 1,670개, 一字小砲 1만개, 小信砲 330개, 弩弓 1만 2,000장, 氈牌·竹牌 각 330개, 弩箭 6만개를 제조하도록 명하였다.<sup>47)</sup>

특히 1592년 12월 8일에 송응창이 이여송에게 보낸 글에는 무기 준비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어 주목된다.<sup>48)</sup> 요동도사가 거두어 보관하는 무기가 大將軍 80位, 滅虜砲 214門, 鐵蒺藜 2만 7천개, 소신포 1,196개, 快鎗 500杆, 三眼銃 100杆, 호준포 20위, 소포 2백개 등이었다. 遼海道에서 나누어

42) 『宣祖實錄』卷45, 宣祖26年 閏11月 壬午.

43) 『宣祖實錄』卷89, 宣祖30年 6月 丁丑; 『宣祖實錄』卷91, 宣祖30年 8月 癸酉; 『宣祖實錄』卷91, 宣祖30年 8月 丙子.

44) 諸葛元聲, 『兩朝平壤錄』日本下, (『壬辰之役史料匯輯』(下),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0, 122~123쪽)

45) 『燃藜室記述』卷17, 宣祖朝故事本末 明兵再援 素沙之捷.

46) 『經略復國要編』卷1, 「初奉經略請勅疏」, (『壬辰之役史料匯輯』(上), 71~72쪽)

47) 『經略復國要編』卷1, 「檄天津永平遼東等六道(二十七日)」, (위의 책, 85~86쪽)

48) 『經略復國要編』卷4, 「檄李提督(初八日)」, (위의 책, 291~296쪽)

만든 무기로서 낭선·당파·죽장창·목장창·일자소포·소신포·칠질려·화전·輕車·氈牌·멸로포·호준포·백자총 등이 있고, 요동의 각 衛에서 끌어 모은 弓·箭·弦도 있었다. 이밖에 宣府·保鎮·大同鎮의 군사들도 鐵子·鉛子·石子 등을 다수 준비해 온 상태이고 兵部에서도 明火·毒火 3만 3천 개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왜란 당시 조선인 눈에 비친 명군의 무기 실태는 실제로 어떠했을까? 명군이 제2차 평양성 전투에서 사용한 화포와 화전의 위력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49)</sup> 가까운 곳에서 명군을 관찰한 유성룡은 浙江兵과 砲手만이 화전·화차·호준포·낭선 등을 소지했다고 언급하였다.<sup>50)</sup> 또 남병을 이끈 낙상지가 사용한 무기는 장창과 麻牌였다.<sup>51)</sup> 1593년 1월에 조선에 온 備禦 王玠가 거느린 보병 2,700여 명은 포수와 槍手로 구성되었다.<sup>52)</sup> 이밖에도 鐵盾·雙劍이 등장하였다.<sup>53)</sup> 李擢英은 1593년 1월 日誌에서 평양성 전투 소식을 듣고 “명군이 북을 치면서 성내로 육박해 남방 포수와 遼東·薊州 弓兵들이 방패와 긴 창(矛槍)을 가지고 급습해 크게 무찔렀다 한다.”고 적었다.<sup>54)</sup> 지방에 있던 이탁영이 전해들은 명군의 무기는 화기 그리고 방패와 긴 창이었다.

1593년 4월 조선에 도착한 부총병 劉綎의 부대가 소지한 무기도 주목을 끈다. 유정은 江西人으로 泗川兵 5,500여 명을 지휘했는데 이 속에는 여러 변방에서 귀화한 사람도 있었다.<sup>55)</sup> 이 부대가 소지한 무기는 현란하다고 표현될 만큼 조선에서 보지 못한 낯선 것들이 꽤 있었다. 扁架弩·擔弩·

49) 李燭錫, 앞의 책, 1318쪽.

50) 『西厓全書』本集 卷6, 書狀 天兵退駐平壤後條列軍中事宜狀(『西厓全書』1, 124쪽)

51) 『宣祖實錄』卷34, 宣祖26年 1月 丙寅.

52) 『宣祖實錄』卷34, 宣祖26年 1月 丙辰.

53) 『象村集』卷56, 志 「天朝先後出兵來援志」.(앞의 책, 150쪽) ; 『宣祖實錄』卷55, 宣祖 27年 9月 戊寅.

54) 『征蠻錄』癸巳春正月.

55) 『宣祖實錄』卷35, 宣祖26年 2月 辛丑 ; 『宣祖實錄』卷37, 宣祖26年 4月 戊子.

諸葛弩·皮甲·雷雪刀·關刀·月牙劍·丫槍·籐牌·活拿人棍·拿人槌·狼筈·打拳·天蓬劍·楊家槍 등으로 弩를 비롯해 창·검류가 주종을 이룬다. 유정도 四楞鞭·偃月刀·袖箭 등의 무기를 직접 사용하였다.

이상으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선인 눈에 비친 명군의 단병기는 창·낭선·방패·검 등이 대다수였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이 무기들을 남병 즉 절강병과 사천병이 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李象鼎은 평양성 전투에서 절강병이 사용한 방패·낭선·장창·당파의 기예는 조선에서 처음 보는 것이라고 평하였다.<sup>56)</sup>

이와 대조적으로 요동군 무기는 남병과 비교되어 무기가 없다는 식으로 자주 거론되었다. 이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 천총 毛承先은 무기가 없어 조선에서 창을 제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므로<sup>57)</sup> 과장된 지적만은 아닌 듯 하다. 북병의 무기로 눈에 띄는 사례는 短劍이나 활·검·곤봉·鐵椎鞭 등이 있다.<sup>58)</sup> 정유재란 때 다시 조선에 나온 조승훈 군은 궁시를 가진 자가 전체의 10분의 1 수준이며 나머지는 杖만 소지했다고 관찰되었다.<sup>59)</sup>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면 명군이 사용한 단병기는 창·낭선·방패·칼·杖 등이었다. 이 가운데 남병은 장창을, 북병은 단검이나 棍 등을 비중 있게 사용하였다. 이 점은 기병은 短劍을 보병은 長槍을 주로 사용한 다거나 중국의 鳥銃과 長槍은 왜적이 두려워한다는 명군의 직접적인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60)</sup> 남병이 장창이나 낭선을 주무기로 사용한 이유는 절강전법이 왜적 즉 일본군에게 대항하는 전법으로 발달했기 때문이다.

56) 『兵學指南演義』序.

57) 『宣祖實錄』卷88, 宣祖30年 5月 乙巳.

58) 『象村集』卷56, 志「天朝先後出兵來援志」.(앞의 책, 156쪽); 『宣祖實錄』卷92, 宣祖30年 9月 丙申; 『燃藜室記述』卷17, 宣祖朝故事本末 明兵再援 素沙之捷.

59) 여기서 '杖'이 어떤 무기를 지칭하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木棍이 아닐까 싶다.(『宣祖實錄』卷124, 宣祖33年 4月 丁亥)

60) 『宣祖實錄』卷35, 宣祖26年 2月 乙巳; 『宣祖實錄』卷40, 宣祖26年 7月 庚辰.

### 3. 단병기의 확산 추이

#### (1) 단병무예의 수용 노력

1593년(선조26) 1월의 평양성 전투 이후 선조는 이여송이 승리 요인으로 언급한 戚繼光의 『紀效新書』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기효신서』를 비밀리에 입수하였다.<sup>61)</sup> 『기효신서』를 입수한 조선 조정은 먼저 『기효신서』의 내용 가운데 화기나 화포수의 진법훈련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sup>62)</sup> 그것은 '남방포수'라는 표현에서 감지되듯이 『기효신서』의 진법을 구사하는 남병 즉 절강병이 화포를 소지한 포수라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또 조선 조정은 전시상황에서 군사의 확보·편성·훈련이라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기효신서』의 군대편성과 조련 부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였다.<sup>63)</sup> 훈련도감에서 “『기효신서』에서 대오 결속을 제일의 요점으로 삼은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고 했듯이 「束伍解」(1594. 10)를 먼저 풀이했고 「編伍法」(1595. 12)도 각 도에 내려 보냈다.<sup>64)</sup> 이러한 조치는 조선에서 『기효신서』의 수입이 곧 단병기 수용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593년 7월 명나라 劉員外는 선조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鳥銃과 長槍은 왜적이 두려워하는 무기이므로 이를 익히도록 권유했다. 이에 조선 조정은 포수를 선발해 화기 습득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갔고 단병기는 아직까지 관심 밖에 머물렀다.<sup>65)</sup> 더욱이 선조는 조선인이 창검을 사

61) 『宣祖修正實錄』卷28, 宣祖27年 2月 庚戌.

62) 『宣祖實錄』卷45, 宣祖26年 閏11月 壬午; 『宣祖實錄』卷46, 宣祖26年 12月 癸酉.

63) 『宣祖實錄』卷44, 宣祖26年 11月 辛未.

64) 『宣祖實錄』卷60, 宣祖28年 2月 壬戌; 『宣祖實錄』卷56, 宣祖27年 10月 乙丑; 『宣祖實錄』卷64, 宣祖28年 6月 甲寅; 『軍門謄錄』乙未 12月 18日.(朝鮮史編修會編 『軍門謄錄』, 33쪽)

용할 줄 모르므로 槍軍을 혁파하고 杖이나 回鞭 등으로 싸우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유성룡도 명군의 鐵回鞭이 조선인에게도 유용하다고 건의했는데, 선조가 철회편을 권장한 이유는 농민이 많이 사용하던 무기이기 때문이지 유성룡처럼 명군의 단병기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한 것은 아니었다.<sup>66)</sup>

그러면 조선 조정에서 명군의 단병기를 주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용한 시기는 언제일까? 이 질문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훈련도감의 살수 양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여겨진다. 이미 1593년 2월에 평양성 전투를 체험한 이덕형·이원익 등은 명나라 전법에 깊은 인상을 받아 절강의 狼戰이나 三技兵 제도를 익혀야 한다는 의견을 선조에게 개진하였다.<sup>67)</sup> 유성룡도 절강의 화기 및 다양한 단병기를 제조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제안들은 선조에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후 1594년 2월 이덕형은 다시 선조에게 『기효신서』에 의거해 여러 가지 무예나 창·검법을 익히자고 촉구해 허락을 받아냈다.<sup>68)</sup> 이로부터 한 달 후 훈련도감에 살수를 편입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단병기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1년 전과 비교할 때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훈련도감은 1593년 10월 창설 당시 포수로만 구성했다가 1594년 3월 광해군의 호위 부대이던 義勇隊를 살수로 편입한 것이다.<sup>69)</sup> 『무예도보통지』에도 “선조 27년(1594) 2월에 훈련도감을 설치해 절강병의 기예를 가르치기 시작했다.”<sup>70)</sup> 고 나와 있어 훈련도감의 살수 편입이 단병기 수용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65) 『宣祖實錄』卷40, 宣祖26年 7月 庚辰.

66) 『宣祖實錄』卷46, 宣祖26年 12月 戊辰.

67) 『宣祖實錄』卷35, 宣祖26年 2月 乙巳.

68) 『宣祖實錄』卷48, 宣祖27年 2月 庚申.

69) 金鍾洙, 『朝鮮後期 訓練都監의 設立과 運營』,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62~64쪽.  
훈련도감의 三手兵 편제는 1594년 6월에 수문장을 비롯해 部將·내급위·검사복 등으로 구성된 射手가 들어오면서 마무리되었다.

70) 『武藝圖譜通志』, 『兵技總叙』.

했음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살수 창설은 단병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심보다는 화기 보급과 맞물리면서 부각되었다고 여겨진다. 즉, 『기효신서』를 토대로 장병기(遠器)와 단병기(近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조총과 함께 단병기에도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1594년 3월 병조에서는 훈련도감군을 포수·사수·살수의 순으로 배열해 조총으로 가장 먼 거리 적을 제압한 후 이어 弓矢로 공격하고, 가까이 부딪치면 長槍과 短兵으로 대적하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건의하였다.<sup>71)</sup> 아직 이때는 훈련도감에 射手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장·단병기를 결합한 전법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해 7월 유성룡도 도감군을 위급한 시기에 활용하려면 포수·검 등 장병기와 단병기를 다루는 병사를 함께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2)</sup>

훈련도감의 살수 편성 이후 조선 조정은 단병기의 보급을 의욕적으로 전개했다. 무엇보다도 다음 절에서 검토하게 될 명나라 출신의 교련관을 확보하는 조치가 있었다. 동시에 살수의 우대 조치도 마련해 각종 시재와 武科의 실시 그리고 料米 지급 등을 시행하였다. 이 때문에 살수를 지나치게 우대한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sup>73)</sup> 또 兒童隊를 창설하거나 文臣에게도 창검술을 익히도록 강조하였다.<sup>74)</sup> 이로 인해 단병기에 대한 관심도 확산되어 1594년 4월 무렵에는 다소 과장되나 “요즈음 달 밝은 밤이면 집집마다 총 쏘고 창 쓰는 법을 익히며 애들까지도 모두 그것을 본받아 익힌다.”<sup>75)</sup>는 지적도 있다. 1595년 9월에도 일본군은 조선군이 명군의 號衣·

71) 『宣祖實錄』卷49, 宣祖27年 3月 癸卯.

72) 『西厓全書』本集 卷7, 啓辭 令兵曹專委鍊兵啓(七月). (『西厓全書』1, 서예선생기념사업회, 1991, 153쪽)

73) 조선왕조실록에는 1595년(선조28) 이후 살수 우대책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宣祖實錄』卷69, 宣祖28年 11月 乙亥.

74) 『宣祖實錄』卷55, 宣祖27年 9月 辛巳; 『宣祖實錄』卷54, 宣祖27年 8月 丁卯; 『宣祖實錄』卷65, 宣祖28年 7月 己丑.

75) 『宣祖實錄』卷50, 宣祖27年 4月 乙丑.

號巾을 착용한 상태에서 조련하는 모습을 보고 남병이 벌써 도착했다고 두려웠다고 한다.<sup>76)</sup>

그러나 단병기의 보급은 조총처럼 단시일 안에 큰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 살수조련은 절강병이 “포수·사수는 손을 움직이는 수고에 불과할 뿐이다 군대 조련은 오로지 살수에게 달려 있다.”<sup>77)</sup> 고 지적하듯이 포수나 사수에 비해 오랜 시간과 특별한 기예를 요하였다. 또 민간에서 궁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단병기를 대하는 시선이 곱지 못한 분위기도 있었다.<sup>78)</sup> 그 결과 1594년 중반에 도감 포수의 기예가 절강병처럼 善手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반해 살수는 아직 미숙해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간주되었다.<sup>79)</sup> 1595년에도 도감군이 창이나 방패의 운용법을 제대로 모른다고 보고되었다.<sup>80)</sup> 민간에서도 살수가 시험 보는 광경을 우스꽝스럽게 여긴다든가 항왜마저 살수의 기예가 아이들 놀이 같다고 평하였다.<sup>81)</sup>

서울에 소재한 훈련도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지방의 사정은 더 열악하였다. 무기나 훈련법 그리고 교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될 리 없었다. 1594년 4월 무렵까지 경상·전라도에서 창·검술의 교련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sup>82)</sup> 다만, 평안도는 평양성 전투를 치른 격전지답게 평양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명나라 교사에게 활발하게 살수기예를 익혔다.<sup>83)</sup> 1595년 여름, 연병 교사로 조선에 나온 胡大受는 선조를 만나는 자리에서 평양 무사 가운데 창·검 기예가 뛰어난 사람이 꽤

76) 『宣祖實錄』卷67, 宣祖28年 9月 乙亥.

77) 『宣祖實錄』卷62, 宣祖28年 4月 丙寅.

78) 『宣祖實錄』卷62, 宣祖28年 4月 丙寅; 『宣祖實錄』卷83, 宣祖29年 12月 庚午; 『宣祖實錄』卷87, 宣祖30年 4月 癸酉.

79) 『宣祖實錄』卷49, 宣祖27年 3月 己卯; 『西厓全書』本集 卷7, 啓辭 令兵曹專委鍊兵啓(七月). (『西厓全書』1, 154쪽)

80) 『宣祖實錄』卷62, 宣祖28年 4月 丙寅.

81) 『宣祖實錄』卷59, 宣祖28年 1月 乙未; 『宣祖實錄』卷54, 宣祖27年 8月 丁未.

82) 『宣祖實錄』卷49, 宣祖27年 3月 戊戌; 『宣祖實錄』卷50, 宣祖27年 4月 壬申.

83) 『宣祖實錄』卷62, 宣祖28年 4月 辛未; 『宣祖實錄』卷67, 宣祖28年 9月 壬午.

있다고 전하였다.<sup>84)</sup>

단병기의 확산 추이 여부는 왜란 동안 실시된 武科 과목을 검토해 보면 확연해진다. 試才와 달리 무과 과목에 단병기가 포함되는 것은 어느 정도 단병기의 보급을 전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표 2>에서 보듯이 왜란 동안 무과의 과목으로 단병기를 채택한 시험이 좀처럼 없고 1599년(선조 32) 무렵에야 장창·당과·用劍 등이 실시되었다. 이 점은 왜란 동안 무과의 시행과 과목을 다 파악하지 못해 단정적으로 논의할 수 없으나 단병기의 보급이 쉽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닐까 한다.

무과의 시험과목에 단병기를 포함하려는 시도는 이미 1594년 8월에 있었으나 시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별시의 초시 과목에 칼·창·낭선·등패·당과 등을 포함했으나 여러 논의 끝에 초시는 생략하고 殿試만 실시되었다. 당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조정의 의지만 갖고 시험을 강행하기에는 단병기 보급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즉 무기가 없어 무기 사용법을 익힐 수 없는데다가 교관마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sup>85)</sup> 따라서 전시 과목에 단병기를 포함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표 2> 1593~1600년 무과의 시험과목

시 기	시 험	구분	과 목
선조 26	전주별시	초시	철전, 騎射二中以上 若不中者 鳥銃三柄一中以上
선조 27	정시	초시	조총, 철전, 기사
	별시		조총
선조 30	별시	전시	편전, 조총
선조 32	별시	초시	육냥, 기사, 조총·불랑기·백자총(포수) 장창·당과·用劍(살수)
	전시	전시	철전, 편전, 조총, 장창, 용검
선조 33	별시	전시	편전, 기사, 조총, 등패, 용검

※ 참고문헌 : 『무과총요』(아세아문화사, 1974).

84) 『宣祖實錄』卷65, 宣祖28年 7月 丙申.

85) 『宣祖實錄』卷54, 宣祖27年 8月 戊辰 ; 『宣祖實錄』卷54, 宣祖27年 8月 己巳.

선발기준과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무과 과목에 단병기를 반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단병기는 명중 여부가 아닌 자세나 동작 등을 중시해 점수를 매기므로 명쾌한 결과를 산정하기 어려웠다. 시험을 치르는 동안 응시자의 기예를 매 순간 포착해 점수를 부여하므로 시험관의 주관이 개재될 가능성이 높았다.<sup>86)</sup> 그러자 보완책으로 1595년 4월에 살수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승부를 겨루도록 하였다.<sup>87)</sup> 하지만 시관의 주관에 근거해 점수를 매기는 문제는 이후 광해군 시기에 제기될 만큼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었다.<sup>88)</sup>

끝으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조선에서 적극 육성된 단병기의 종류다. 1596년에 작성된 『鎭管官兵編伍冊』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변·안주·구성·의주 진관의 살수 구성이 등패 : 낭선 : 장창 : 당과 → 2 : 2 : 5 : 3의 비율이어서 장창수가 월등히 많다.<sup>89)</sup> 이 문제와 관련해 1595년 11월~1596년 6월에 황해도 은율에서 제조한 병기 내역도 흥미롭다. 제조 무기는 백자총 36, 조총 38, 호준포 2, 삼안총 5, 불랑기 2, 각종 승자총 120, 삼안총 30, 당과 9, 倭槍刀 130개다.<sup>90)</sup> 1596년 11월에도 은율과 풍천에는 위급한 때에 대비해 조총과 倭槍을 만들어 보관했다.<sup>91)</sup> 단편적인 사례이나 조선 조정에서 중점적으로 제작한 단병기가 槍임을 보여준다.

또 선조는 의주에 있을 때부터 칼·창을 잘 쓰는 자에게는 料米를 지급 하라고 전교하였다.<sup>92)</sup> 1592년 9월에는 압록강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조선으로 중국 장수를 청해 검술을 배워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도성에

86) 『宣祖實錄』卷54, 宣祖27年 8月 戊辰 ; 『宣祖實錄』卷54, 宣祖27年 8月 己巳 ; 『宣祖實錄』卷55, 宣祖27年 9月 庚寅.

87) 『宣祖實錄』卷61, 宣祖28年 3月 丙申 ; 『宣祖實錄』卷62, 宣祖28年 4月 辛未.

88) 『宣祖實錄』卷157, 宣祖35年 12月 甲午 ; 『光海君日記』卷31, 光海君 2年 7月 庚申.

89) 김우철,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경인문화사, 2000, 56~71쪽.

90) 『軍門騰錄』丙申六月二十三日, 體察使意從事官啓.(앞의 책, 85쪽)

91) 『軍門騰錄』丙申十一月初五日.(앞의 책, 113쪽)

92) 『宣祖實錄』卷48, 宣祖27年 2月 庚申.

와 있는 낙상지에게 정예병을 보내 劍術을 익히도록 하고 試才도 실시하라고 명하였다.<sup>93)</sup> 이처럼 선조가 명군에게 먼저 배우도록 한 기예는 다른 아닌 검술이었다. 그리고 降倭 가운데 검술에 능한 사람을 뽑아 조선군을 가르치도록 하는 등 일본의 검술도 적극 수용하였다.<sup>94)</sup> 앞 장에서 밝혔듯이 창·검은 일본군·명군이 사용한 대표적인 단병기였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에서 창·검의 강조는 단병기 수용과 관련해 시사하는 점이 크다.

지금까지 조선에서 진행된 단병기의 확산 추이를 검토하였다. 조선에서는 『기효신서』가 수입된 지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훈련도감의 살수 편입을 계기로 단병기 수용에 박차를 가하였다. 단병기 가운데 일본군과 명군이 사용한 대표적인 단병기이자 임란 이전 조선에서도 사용하던 창·검에 큰 비중을 두었다. 그런데 단병기의 보급은 조총과 달리 많은 시간을 요하며 정착과정이 쉽지 않았다. 오랜 숙련기간이 필요한데다가 민간에서 단병기를 대하는 시선이 곱지 못한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 (2) 명나라의 鍊兵教師

조선 조정이 군사 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한 때는 1593년(선조 26) 4월 20일 이여송 부대가 서울에 입성한 이후였다. 유성룡을 비롯한 대신들이 명군과 함께 서울로 들어와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고, 명나라에서도 파병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측에 군사조련을 촉구한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sup>95)</sup>

1593년 5월 참장 낙상지는 유성룡에게 조선이 독자적으로 왜적을 방비하려면 명나라 남방 군대가 돌아가기 전에 빨리 조련해야 한다고 권유하였다.<sup>96)</sup> 경략 송응창 역시 조선 조정에게 호남의 군정 5만명을 뽑아 유정과

93) 『宣祖實錄』卷30, 宣祖25年 9月 甲戌; 『宣祖實錄』卷31, 宣祖25年 10月 癸巳; 『宣祖實錄』卷31, 宣祖25年 10月 己亥.

94) 『宣祖實錄』卷54, 宣祖27年 8月 丁未.

95) 『宣祖實錄』卷41, 宣祖26年 8月 甲午; 『宣祖實錄』卷50, 宣祖27年 4月 壬申.

낙상지 군영에서 전법을 익히도록 조언하였다.<sup>97)</sup> 조금 늦은 시기의 사례로서 1597년 정유재란 때 요동에 도착한 浙江 指揮 茅明은 邢軍門 총독 邢玠에게 ‘平倭十議’를 올렸다. 이 글에서 茅明은 명군이 바다를 건너가 부산의 왜구를 소탕하기보다는 남병으로 교사를 삼아 조선군을 조련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98)</sup>

군사조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명나라의 요구에 직면한 조선 조정은 먼저 명군에 조선 군인을 배속시켜 무기 사용법이나 전법을 익히는데 주력했다. 1593년 5월에 유성룡은 선조에게 명나라 남병에게 화포 제조법과 함께 전법을 익히기 위해 군사를 선발해 명나라 장수에게 배속시켜 조련하도록 촉구하였다.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군사 70여 명을 선발해 낙상지에게 보내 빈집에서 익히게 하는 조치도 취하였다.<sup>99)</sup> 1593년 8월에 비변사도 하삼도의 상병군 1,000여 명을 南兵과 함께 기거시키면서 무기와 전법을 훈련시키는 의견을 내놓았다.<sup>100)</sup>

이후 조선 조정에서 명나라 출신의 교사를 확보해 조선인을 대상으로 직접 훈련에 들어간 때는 1594년(선조 27) 초반 훈련도감에 살수를 편입한 시기였다. 선조가 명나라 교사를 요청한 것은 창검술의 묘법을 전수받으려는 데에 있다고 했듯이 살수 훈련을 위해 명나라 교련관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sup>101)</sup> 명나라 교사 역시 창술·삼지창·낭선·검술 등을 위

96) 『西厓全書』本集 卷6, 書狀 「再乞鍊兵且倣浙江器械多造火砲諸具以備後用」.(『西厓全書』1, 127쪽) 낙상지는 평안도 군사 100명을 뽑아 자신의 부대에서 훈련을 시도했으나 이 당시에 흩어져 버린 상태였다.(『辰巳錄』 「請募兵鍊習因乞遞免狀」: 『西厓全書』1, 743~744쪽)

97) 『龍灣見聞錄』, 『府使金信元示胡公帖』.(한국사료총서 36, 국사편찬위원회 탈초본, 1993, 376쪽)

98) 諸葛元聲, 『兩朝平壤錄』日本下.(『壬辰之役史料匯輯』(下), 134~136쪽)

99) 『辰巳錄』 「請募兵鍊習因乞遞免狀」(『西厓全書』1, 743~744쪽); 『西厓全書』本集 卷6, 書狀 請京城軍卒鍊習浙江火砲狀.(『西厓全書』1, 128쪽)

100) 『宣祖實錄』卷41, 宣祖26年 8月 甲午; 『象村集』卷38, 咨奏一十六首 回咨宋經略.(민족문화추진회 간행본, 1990, 5책 244쪽)

101) 『宣祖實錄』卷61, 宣祖28年 3月 癸巳; 『宣祖實錄』卷62, 宣祖28年 4月 辛未.

주로 교련을 실시했고, 양귀는 쌍도·언월도, 진백기는 창·낭선 등이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았다.<sup>102)</sup>

조선에서 활약한 명나라 교사의 규모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시기상 세 부분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첫 번째, 훈련도감에서 초창기에 활약하던 낙상지 휘하의 聞兪와 賈大才, 문유 휘하의 胡汝和·王大貴 등이며 이어 李二·張六이 합류하였다. 이들은 낙상지가 막하에 있는 군사 가운데 진법을 잘 아는 사람 10여 명을 선발한 사람들이다.<sup>103)</sup> 이들 가운데 聞兪는 척계광이 『기효신서』를 지을 때 동참한 인물로 알려졌다.<sup>104)</sup> 두 번째,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1594년 겨울 무렵에 경략 孫鑛에게 교사를 청했으며 그 결과 1595년(선조28) 2월에 陳良璣 등 12~16명 정도가 조선에 들어왔다. 세 번째, 뒤이어 1595년 7월에 胡大受가 이끄는 100여 명이 조선 군인의 훈련과 방수를 위해 들어 왔다.

또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594년 7월 무렵 각 도에 교사가 파견되었다고 한다.<sup>105)</sup> 다른 기록에도 1594년에 각 도에 교사를 파견해 三手技法을 훈련시켰다는 내용이 있다.<sup>106)</sup> 하지만 각 도에 파견된 교사가 위에서 지적한 교사 가운데 일부가 파견되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유정의 경우처럼 지방에 내려간 명군이 조선군의 훈련을 담당하기도 했으므로 이 문제는 군사조련과 관련해 앞으로 더 천착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한편, 명나라 연병 교사의 훈련이 진행되면서 조선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첫째, 조선에 파병된 명군은 출신지나 성분이 다양했으므로 기예가 소속부대에 따라 달랐으며 수준도 천차만별이었다. 이 때문에 명나라 군사교관에게 습득하는 무예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

102) 『西厓全書』 錄後雜記(『西厓全書』 1, 810 쪽) ; 『宣祖實錄』 卷53, 宣祖27年 7月 癸未 ; 『宣祖實錄』 卷61, 宣祖28年 3月 丙申.

103) 柳成龍, 『錄後雜記』.(앞의 책, 810 쪽)

104) 『宣祖實錄』 卷48, 宣祖27年 2月 癸丑.

105) 『宣祖實錄』 卷53, 宣祖27年 7月 乙巳.

106) 『國朝實錄』 卷32, 宣祖朝九 甲午二十七年.

하였다.

예컨대 훈련도감에서 교습한 법은 주로 남법 즉 절강전법이였다. 초창기 도감군을 훈련시킨 교사는 낙상지 휘하의 문유와 진양기였다. 그런데 같은 절강전법이라 해도 누가 구사하느냐에 따라 기예가 달랐다. 오유충은 본인 스스로 척계광의 문생이라고 밝혔지만 훈련도감에서는 오유충 부대의 창법이 『기효신서』와 다르다고 보았다.<sup>107)</sup> 1594년 8월에 유정이 이끄는 사천병이 서울에 진주하자 조선에서는 유정 군에게 진법을 익히고자 하였다. 그런데 일부 대신이 유정의 전법이 절강전법과 다르고 행진법은 北法을 사용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sup>108)</sup> 이 밖에도 평양 살수가 한때 하북성 眞定의 창법을 배우다가 서울의 창법과 다르다는 지적이 일자 다시 절강 창법을 익혔다.<sup>109)</sup>

선조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조선군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다 배우는 쪽이 낫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선조는 호여화 등이 전수한 창검술이 어색하니 창검술에 정통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도록 전교하였다.<sup>110)</sup> 또 1595년 6월에는 병조판서에게 명나라 사신이 데려온 家丁 가운데 솜씨 좋은 살수를 교섭해 그 기예가 훈련도감 훈련법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관찰하도록 비밀리에 지시하는 태도를 보였다.<sup>111)</sup>

둘째, 명나라 연병 교사들이 조선에서 활약하면서 조선 조정이나 민간에 끼치는 폐해가 점차 늘어났다.<sup>112)</sup> 이미 1594년 3월에 “영남의 戰陣에서 명목상 창검술을 훈련한다고 하나 중국 병사에게 사역이나 당할 뿐 효과는 별로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sup>113)</sup> 특히 호대수가 이끄는 100여 명의

107) 『宣祖實錄』 卷89, 宣祖30年 6月 癸酉 ; 『宣祖實錄』 卷90, 宣祖30年 7月 甲午 .

108) 『宣祖實錄』 卷54, 宣祖27年 8月 庚申 ; 『宣祖實錄』 卷90, 宣祖30年 7月 甲午 .

109) 『宣祖實錄』 卷65, 宣祖28年 7月 己丑 .

110) 『宣祖實錄』 卷60, 宣祖28年 2月 庚申 .

111) 『宣祖實錄』 卷64, 宣祖28年 6月 壬子 .

112) 『軍門騰錄』 丙申正月初三日.(앞의 책, 41쪽)

113) 『龍蛇雜錄』 戊戌九月 .(한국사료총서 37, 국사편찬위원회 탈초본, 1994, 50 쪽)

교사들이 銀開鑛, 백성 수탈, 뇌물수수 등과 연루될 조짐이 커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선조는 호대수가 연병 교사로 여기에 온 지 오래인데 한 사람도 훈련하는 모습은 볼 수 없고 민간의 원성만 야기한다는 불만을 토로하였다.<sup>114)</sup> 조선 조정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은 유정도 팔거에 주둔한 2년 동안 훈련비용만 썼지 실효는 그다지 없다고 평가되었다.<sup>115)</sup>

그리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1595년 겨울 무렵에 교사 철수가 거론되고 이듬해 명나라 측에서 500여 명의 교사 파견을 제기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기도 하였다.<sup>116)</sup>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해 조선군 가운데 살수기예에 능통한 사람을 선발해 각 지방에 교사로 파견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조선에서는 명군의 전법과 기예를 습득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직접 명군에게 단병기예를 익히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초창기에는 군사를 선발해 명군 부대에서 익히기도 했으나 살수가 훈련도감에 편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연병 교사를 초빙해 단병 기예를 습득했다. 지방에도 교사가 파견되고 어느 정도 훈련이 진행되면서 조선군 가운데 기예가 뛰어난 사람을 교사로 선발해 내려 보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변화는 조선에서 살수기예가 수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선에 정착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 4. 『무예제보』의 간행

『무예제보』는 『기효신서』에서 棍棒·籐牌·狼筈·長鎗·鎧鉞·長刀 등 6

114) 『宣祖實錄』 卷73, 宣祖29年 3月 壬辰.

115) 『宣祖實錄』 卷75, 宣祖29年 5月 丁卯.

116) 『宣祖實錄』 卷69, 宣祖28年 11月 辛卯 ; 『宣祖實錄』 卷70, 宣祖28年 12月 癸卯 ; 『宣祖實錄』 卷74, 宣祖29年 4月 己亥 ; 『宣祖實錄』 卷75, 宣祖29年 5月 丁卯.

기를 골라 해설과 그림 그리고 한글 번역(언해)을 붙인 것이다. 『무예제보』는 1598년(선조 31) 10월에 완성되었다. 이 해는 11월 노량해전을 끝으로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면서 왜란이 막을 내린 시점이었다. 그러므로 『무예제보』가 완성된 시점은 왜란이 끝나기 바로 직전인 셈이다. 또 척계광의 『기효신서』가 조선에 알려진 때로부터 6년 6개월을 넘긴 시기이기도 하다. 『무예제보』를 만들기까지 이처럼 오랜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은 바로 단병무예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소화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단서다.

『무예제보』가 왜란의 終戰 직전에 편찬된 점은 단병무예의 확산 속도가 조총에 비해 다소 더디게 진행되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전시상황에서 단병기의 무예나 기구가 생소한 상태에서 자세나 동작이 강조되는 단병기예를 독학으로 습득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예 습득의 지름길이라 여긴 명나라 군사 교련관에게 직접 훈련받는 일도 교사마다 출신지에 따라 기예가 달라 통일성의 결여라는 문제에 부딪혔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체계적인 군사교련을 위해 단병무예의 原流인 『기효신서』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런데 조선에서 『기효신서』의 독해는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기효신서』의 내용이 이제까지 조선이 접하지 못한 武具와 진법체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sup>117)</sup> 더구나 『기효신서』는 중국 方言이 많아 완전한 의미 파악이 쉽지 않았다.<sup>118)</sup> 선조는 1594년초 『기효신서』를 열람한 후에 “내가 천하의 서책을 많이 보았으나 이 책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sup>119)</sup> 유성룡도 『기효신서』의 내용대로 군사훈련 절목을 준비하려고 하나 문장이나 용어, 기계명칭 등이 난해하다고 호소하였다.<sup>120)</sup> 병조판서 이덕형

117) 노영구,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軍史』 34, 국방군사연구소, 1997, 132쪽.

118) 『藥圃集』 卷3, 序 紀效新書節要序.

119) 『宣祖修正實錄』 卷28, 宣祖 27年 2月 庚戌.

120) 『芹曝集』 「請厚對唐人啓(癸巳十月)」, (『西厓全書』 1권, 서예선생기념사업회, 622쪽)

역시 선조가 『기효신서』의 내용을 깨우쳤냐고 묻자 아직 모두 깨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sup>121)</sup>

조선 조정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효신서』의 해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진법에 능통한 남방 출신이나 명나라 장수의 아문을 찾아가 의문점들을 길정하였다.<sup>122)</sup> 그리고 1594년 봄부터 선조의 명으로 훈련도감에서 殺手諸譜<sup>123)</sup>의 번역에 착수했고 그 실무를 낭관 韓嶠에게 맡겼다.<sup>124)</sup> 이 무렵 선조는 살수 양성을 위해 살수 系譜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sup>125)</sup> 그러나 이미 「東伍解」(1594. 10)가 나온 상태에서 살수제보의 번역 작업은 1595년 5월 무렵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 해에 재개되었다.<sup>126)</sup>

번역 작업이 난항을 겪은 이유는 『기효신서』의 내용이 생경하고 까다로운 데다가 무예조에는 圖만 있고 譜가 없기 때문이었다.<sup>127)</sup> 한교의 표현에 따르면 『기효신서』의 서술 형태는 내용을 정제한 간략한 설명문 방식이었다. 이에 한교는 번역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효신서』에 나오는 여러 자세를 풀이할 수 있는 보충 자료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런데 「鈿譜」 이외에 다른 여러 기예의 譜를 구할 수 없고 여러 자세를 연속해 익히는 譜도 근거할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sup>128)</sup>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한교는 살수보의 해석(언해)을 마치기 위해 방향을 선회해 명군에게 모르거나 의심나는 부분을 직접 묻는 방식을 취했

121) 『宣祖實錄』卷49, 宣祖27年 3月 戊戌.

122) 『芹曝集』, 「請厚對唐人啓(癸巳十月)」, (『西厓全書』1권, 서예선생기념사업회, 622쪽)

123) 여기서 살수제보란 필자의 판단으로 『기효신서』에 담긴 살수보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鈿譜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예도 반드시 모두 그 보가 있을 것이나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라는 한교의 지적으로 보아 살수기예의 내용을 실어놓은 여러 譜들도 포함했다고 여겨진다. (『武藝諸譜』, 『武藝交戰法』)

124) 『武藝諸譜』, 『武藝交戰法』

125) 『宣祖實錄』卷62, 宣祖28年 4月 辛未.

126) 『宣祖實錄』卷63, 宣祖28年 5月 庚子 ; 『武藝諸譜』, 『武藝交戰法』, “……乙未年 殺手譜 翻譯之時 臣以其所欠十二勢 作為別譜 附於其下 ……”

127) 『藥圃集』卷3, 序 紀效新書節要序.

128) 『武藝諸譜』, 『武藝交戰法』

다. 살수를 뽑아 명군 진영에 가서 묻고 명군의 시범 자세를 하나하나 상세히 관찰해 해석을 진행하였다. 명나라 교사의 동작에서 의심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찾아가 질문하였다. 1598년 7월, 한교는 무예 자세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훈련도감 살수 가운데 12명의 教師隊를 선발해 許國威를 찾아갔다. 許國威는 여러 무예에 정통하고 『기효신서』를 잘 아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한교가 許國威가 나눈 문답 내용은 『무예제보』의 끝에 실려 있다.

이처럼 조선측의 집요한 노력 끝에 완성된 살수제보의 해석서가 바로 『무예제보』다. 참고로 『무예제보』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習法을 설명한 譜와 그림(圖)이 있고, 전체 동작의 순서를 總圖로 정리했으며 習法을 한글로 옮긴 ‘니기논譜’를 두었다. 요컨대 『무예제보』는 『기효신서』에 없는 譜를 만들고 충도를 수록하는 등 그 내용을 조선식으로 재해석한 병서였다.

그런데 1610년(광해군 2)에 간행된 『武藝諸譜翻譯續集』에는 “『기효신서』本圖에 실려 있는 것은 단지 鈹·劍·棍·牌·槍·笥 일 뿐으로 나머지 大

<표 3> 『무예제보』의 구성

목 록	본문 내용과 순서
棍譜	大棒製, 棍譜, 棍勢總圖, 棍니기논譜
牌譜	牌譜, 籐牌製, 牌勢總圖, 籐牌니기논譜
笥譜	笥笥製, 笥譜, 狼笥總圖, 狼笥니기논譜
長鎗 前譜·後譜	長鎗製, 長鎗前譜, 長鎗前譜諸勢總圖, 長鎗니기논前譜 長鎗後譜, 長鎗後譜諸勢總圖, 長鎗니기논後譜
鈹譜	鎗鈹製, 鈹譜, 鈹勢總圖, 鎗鈹니기논譜
劍譜	長刀製, 劍譜, 劍勢總圖, 劍니기논譜
許遊擊答問	技藝質疑
壽海重編交戰法	武藝交戰法

拳·偃月刀·鉤槍·倭劍 등의 기예는 실려 있지 않다. 그러므로 『무예제보』에서 찬술한 내용은 파·검 등의 기예일 뿐이고 대권·언월도 등 여러 기술은 함께 실지 못했다”고 하였다. 즉 『무예제보』가 『기효신서』를 전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다른 기예를 함께 실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를 달리 이해하면 『무예제보』는 전시상황에서 禦倭 전법을 수록한 『기효신서』를 충실히 수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점은 『무예제보』에서 정리된 棍棒·籐牌·狼筈·長鎗·鎗鉞·長刀 등 여섯 가지 무예가 척계광의 전법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sup>129)</sup> 앞서 살펴본 것처럼 籐牌·狼筈·長鎗·鎗鉞는 한 隊의 기본 구성이며 곤봉은 창을 익히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하는 무기였다. 장도는 근접전에서 꼭 구비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무기로 강조되었다.

요컨대, 『무예제보』는 근접전 무기의 사용법과 동작·자세를 설명한 병서로서, 『기효신서』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살수보를 참조하고 명군의 자문을 받아 조선의 언어로 정리한 병서다. 『무예제보』는 조선에서 간행된 최초의 무예서이자 단병기를 조선에 적용시킬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단병무예가 조선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자 조선의 병법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변화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5. 맺음 말

이상으로 임진왜란기 단병기의 수용과 『무예제보』의 간행에 대해 검토하였다. 『무예제보』는 『기효신서』에서 棍棒·籐牌·狼筈·長鎗·鎗鉞·長刀 등 6기를 골라 해설과 그림 그리고 한글 번역을 붙인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9) 노영구,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56쪽.

왜란 때 조선에 건너온 일본군 규모는 30만 대군이었다. 일본군은 상층 계급의 騎士와 일반평민으로 구성된 歩卒로 편성되었다. 이 가운데 보졸은 弓兵·조총병·槍兵(長柄組)으로 나뉘어 제 선에 배치되었는데 창병의 비중이 활과 조총의 부대보다 훨씬 높았다. 일본군이 구사한 창·검술은 조총 못지 않게 조선군은 물론 명나라 군에게도 위협적이었다. 특히 일본의 단병기는 조총과 결합된 전술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더 큰 위력을 떨쳤다.

왜란 때 조선의 요청으로 압록강을 건너온 명군은 22만 정도로 추정되며 출신지에 따라 크게 北兵과 南兵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조선에 파병된 명군은 대부분 북병이나 조선 조정은 북병보다는 남병에 신뢰감을 두었다. 조선에 큰 영향을 미친 명군의 단병기는 창·양선·방패·칼·杖 등이었다. 남병이 장창이나 양선을 주무기로 사용한 이유는 절강전법이 왜적 즉 일본군에게 대항하는 전법으로 발달했기 때문이다.

임란 초기 퇴각을 거듭하던 조선에 戚繼光의 『紀效新書』가 알려진 시기는 제독 이여송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한 1593년 1월초 이후였다. 명나라 南兵(浙江兵)이 화기와 단병기를 적절하게 구사해 일본군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접한 조선은 『기효신서』를 비밀리에 입수하였다. 그리고 전시상황에서 군사의 확보·편성·훈련이라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기효신서』의 군대편성과 조련 부분을 우선적으로 활용했다.

단병기 수용은 『기효신서』가 수입된 지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훈련도감의 殺手 편입이 계기가 되었다. 특히 단병기 가운데 일본군과 명군이 사용한 대표적인 단병기이자 임란 이전 조선에서도 사용하던 창·검에 큰 비중을 두었다. 조선에서는 명군의 전법과 기예를 습득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그 중 두드러진 특징은 직접 명군에게 단병기예를 익히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초창기에는 군사를 선발해 명군 부대에서 배우기도 했으나 살수가 훈련도감에 편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연병 교사를 초빙해 단병 기예를 습득했다. 지방에도 교사가 파견되고 어느 정도 훈련이 진행되면서 조선군 가운데 기예가 뛰어난 사람을 교사로 선발해 내려 보내는 방

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단병기 보급은 조총이나 궁시와 달리 많은 시간을 요하며 정착 과정이 쉽지 않았다. 오랜 숙련기간이 필요한데다가 민간에서 단병기를 대하는 시선이 곱지 못한 점도 작용하였다. 단병기 정착이 지난하던 과정은 왜란 동안 무과 과목으로 단병기를 채택한 시험이 좀처럼 없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 점은 왜란 동안 무과의 실시나 고시 과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단정적으로 논의할 수 없으나, 단병기의 정착 과정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또 낭청 한교의 노력으로 『무예제보』가 1598년(선조 31) 10월에 완성된 것도 『기효신서』의 단병무예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소화시키는 과정이 지난했음을 알려준다.

이런 가운데 간행된 『무예제보』는 조선에서 간행된 최초의 무예서이자 단병기를 조선에 적용시킬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단병무예가 조선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무예제보』는 1759년(영조 35)의 『武藝新譜』를 거쳐 정조대 무예종합서라 할 수 있는 『武藝圖譜通志』의 모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정조 때 『무예도보통지』를 인쇄해 특별히 韓嶠의 奉祀孫에게 1질을 따로 보낼 정도로 『무예제보』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였다. 그러므로 『무예제보』는 임진왜란기 조선 상황과 연관지어 단병무예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원고투고일: 2004. 3. 4, 심사완료일: 2004. 4. 1)

주제어: 무예제보, 단병기, 단병무예, 기효신서, 무예도보통지, 한교, 척계광, 임진왜란, 槍劍

<ABSTRACT>

Chosun's Early-days Experience with Short-arm  
weapons(短兵器) during the Imjin-year war period,  
and the Publication of the 『Muyae Jaebo(武藝諸譜)』

Chung, Hae-Eun

This article was conceived in hope of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the Chosun dynasty's early-days efforts to newly integrate short-arm weapons into its own tactical & military operations and (B) the publication of the 'Muyae Jaebo' which continued during the Imjin-year war.

Admittedly, it seems fairly clear that short-arm weapons were far less appreciated than the Jochong rifles at wartime. Yet short-arm weapons like spears and swords, usually used in hand-to-hand fights or close-range encounters, were also considered to be powerful and deadly weapons. They were definitely feared by the Chosun or Chinese Ming troops, of which the latter had already had a first taste of such weapons through occasional incidents with the Japanese piracy. The Japanese short-arm weapons were especially more fearsome, as in battle they were utilized in effective coordination with Jochong rifles.

In the meantime, the military manual 'Gihyo Shinseo(紀效新書)', authored by Cheok Gyaе Gwang/척계광, was introduced to Chosun after General Lee Yeo Song(李如松)'s victory at the Pyeongyang-seong fortress in January 1593. Troops that were enlisted by the Ming government and recruited from the Jeol-Gang/浙江 region, were using both firearms and short-arm

weapons, and demonstrated impressive effectiveness in neutralizing the enemy while the Chosun troops were still not able to provide any kind of defense. Surely there were spears and swords all over the region, but arrows were still the most appreciated weapons in Chosun, and tactical skills using spears and swords were not being learned or practiced that much. So, Chosun decid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Gihyo Shinseo'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Japanese threat. 'Muyae Jaebo' was a manual especially designed for that job, and to help the learners, the manual provided pictures, annotations and also translations in Korean for several sections(6 sections labeled as Gon·Bong/棍棒·Deung·Pae/藤牌·Nang·Seon/狼筈·Jang·Jaeng/長鎗·Dang·Pa/鎗鈹 and Jang·Do/長刀) of the 'Gihyo Shinseo' text.

The publication of the 'Muyae Jaebo' was completed in October 1598, which was the 31st year of King Seonjo's reign and also the year that marked the end of the war that itself was celebrated by the victory at the Noryang battle(露梁海戰) in November and the ensuing retreat of the Japanese forces. At this point it had already been six years that Cheok Gyaе Gwang's 'Gihyo Shinseo' was first introduced to the Chosun people. The time spent in completing the 'Muyae Jaebo' clearly suggests that it was anything but a difficult job to apply short-arm weapons-related tactics to the Chosun situation. Previous researches showed a tendency of interpreting the introduction of the 'Gihyo Shinseo' as a direct sign of short-arm usages' establishment in Chosun. Yet tactics involving short-arm weapons only began to be actively practiced almost a year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ihyo Shinseo', and before that only organizing troops(編伍) and training them(鍊兵) remained primary issues of the Chosun army.

The most important meaning of the 'Muyae Jaebo', is that it was the first military training manual ever published in Chosun and that it truly laid out the ground work for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short-arm weapons' usage in the Chosun peninsula, signaling a new era in combat

tactics. Succeeding 'Muyae Jaebo', other manuals like the 'Muyae Shinbo(武藝新譜)' and 'Muyae Dobo Tongji(武藝圖譜通志)' were also published, respectively in 1759(35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and later during King Jeongjo's reign. The episode of King Jeongjo having a special copy of 'Muyae Dobo Tongji' bestowed to the legitimate successor(奉祀孫) of Han Gyo(韓嶠) certainly demonstrates the alleged importance of the text.

Researches examining the contents and meaning of 'Muyae Jaebo' should be more prominently conducted in the future, considering its important relationship with short-arm weapons' usage.

Key Words : Short-arm weapons, HanGyo, MuyaeJaebo, MuyaeDoboTongji, GihyoShinseo, Imjin-year war

K C I